

TRANS- HUMANITIES

Title : 알레고리적 변용의 오류: 소포클레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A Modern False Allegory: Sophocles's *Oedipus the King*
and Freud's "Oedipus Complex"**

Author(s) : 김춘희 (Choon-Hee KIM)

Source : *Trans-Humanities*, Vol. 9 No. 2 (2016), pp. 169-97.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알레고리적 변용의 오류: 소포클레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김춘희 (서울대학교)

I. 서론

과거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의미화하려는 의식적 노력은 학문적 전통을 형성해오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간적 행위이다. 이런 의미화 과정의 연속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지식의 형태로 전수된다. 수용과 전수, 그리고 변형의 형태로 그 역사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맥락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이것은 특정한 개념이나 시점의 전후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기능이다. 이러한 작업이 유럽에서 특히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은 18세기 이후 유럽 문화의 뿌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연유한다. 그러한 열망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때 과거의 유명한 작품을 자신의 것으로 '전용'하는 경향과 궤를 같이 한다. 여기서 그리스·로마 문화는 유럽 문화의 뿌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열망과 의지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맥락은 유럽의 학문적 계통을 정립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특히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 비극 작품은 유럽 문화의 뿌리로서의 인식과 관련된 영감을 주는 적극적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일리아드』(Illiad)나 『오딧세이』(Odyssey)가 인류 최초의 '기록문학'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켜 온 요인이 될 것이다.

유럽 문화의 뿌리인 그리스 문화로의 귀결은 예술이나 과학에 있어서 그 미학적·이론적 근간을 마련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 소재들은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소위 위배적, 탈경계적 시도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면서 전통적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맥락을 형성해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 대한 인식이나 시각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경계’적 시도를 문화적 ‘전유’의 관점에서 볼 때 패러디가 아닌 이상 그것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며, 그것은 ‘전유’의 합당성, 정당성의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예들 중 그 차용방식과 의도에 있어서 원래 작품의 특성과 의미와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분야 간 의미전용의 ‘자의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의미 정립의 자의성이 초래하는 오류¹가 나름의 역사성을 지닐 때, 그리고 그것이 특정 학문의 방식으로 존재할 때, 그것에 대한 실천적 비판의 필요성을 이 글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을 위한 과학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문학 또는 예술로부터, 가장 잘 알려진 예를 들자면 소포클레스(Sophocles)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Oedipus the King)으로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는 용어를 만들어낸다. 그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에서 이 용어의 “보편적” 기능과 적용을 주창하며 자신의 정신분석학의 초석으로 삼는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정신분석 이론은 오랫동안 이론으로서, 그리고 자크 라캉(Jacques

1. ‘의미 해석’ 자체가 본질적이지 않은 ‘인간의 한계’로 다루어지는 철학적 논의와는 달리, 특정 작품에 대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해석되어온 문학 비평에서 형성될 법한, 작품의 구조와 의미에 의거한 어떤 해석의 틀을 상정할 때 그것으로부터 전적으로 어긋나는 경우를 ‘오류’로 규정해본다. 이 글의 내용이 ‘오류’의 의미를 규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Lacan)에 의한 이론적 해석의 확장 차원에서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져 오고 있다. 이 이론이 차용한 고대 소포클레스의 작품과의 진정한 관계에 대한 엄밀한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현실²이지만, 이 현실은 미셸 옹프레(Michel Onfray)의 지적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이 그 추종자들이 신봉하는 하나의 ‘종교적 진리’³와도 같아서 그 절대성을 부정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과 동일한 맥락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필자의 관심은 이미 탄탄히 굳혀진 “문화적 개념(cultural concept)으로서의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Bloom 19)이 전 세계의 독자 또는 인문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소위 비극 형식의 전형 또는 전범(典範)으로 간주되어온 희랍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진정한 의미 체계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또는 반영하지 않는가에 있다.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또는 그 관련성의 적합성에 대한 불편한 논의는, 특히 후자의 경우 서구에 서든 아시아에서든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했다. 간혹 어느 한 쪽에 관한, 또는 그 상관성 관련 논의 과정에서 그 상관성의 적합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형성되면 특수한 요소들에 관한 부분적 논쟁을 끌어내는 경우는 있어 왔다. 그러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오이디푸스 왕」 차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적극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옹프레의 지적처럼, 프로이트의 이론이 오랜 시간 동안 “종교적 진리”처럼 신봉되어 온 만큼 이것을 문제 삼는 일이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단편적 의미해석의 차이 관련

2. 이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서, 위의 미셸 옹프레의 지적처럼,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학 이론 관련 학자들의 거대한 힘이 이런 비판적 풍토를 형성할 수 없는 문화적 상황이다. 정신분석학적 문학 비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 역시 필자가 10여년 고민해오면서 내놓는 글임을 밝힌다.

3. 옹프레의 저서 *Crépuscule d'une idole*의 부제가 “l'affabulation freudienne”임을 상기할 때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한 그의 입장은 분명히 드러난다.

논의가 아닌, 그 상관성 정립의 문제 자체에 부딪쳐야 하는 비평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위해 먼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기초가 된 오이디푸스 신화의 문학적 특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내용적 틀에 대해 논해본다. 이 글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그 이론의 기초가 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사이의 비유 가능성, 또는 비유의 적절성 문제를 규명해보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일종의 알레고리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알레고리는 플라톤(Plato)의 『국가론』(*The Republic*) 제 7권에 있는 유명한 “Allegory of the Cave”를 ‘동굴 알레고리’가 아닌 ‘동굴 비유’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의 의미이다. 프로이트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서 나타나는 사상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인간 심리의 형성 방식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인간 심리의 근원인 “콤플렉스”에 오이디푸스의 이름을 붙였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이 콤플렉스가 발생하는 상황은 “가족관계 내”에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분석 대상은 알레고리의 양쪽을 구성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과 프로이트의 콤플렉스 발생상황 속의 ‘가족관계’이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발견한 콤플렉스 발생 조건으로서의 가족관계와 「오이디푸스 왕」에서 제시되는 가족관계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초점은 등장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맞추어져야 한다. 여기엔 가족관계의 성격, 그리고 가족관계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성적 욕망과 비(非)성적 사랑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를 위해 먼저 알레고리의 기초가 된 「오이디푸스 왕」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 논해 보자.

II. 「오이디푸스 왕」의 문학적 특성: 극적 장치로서의 ‘신탁’과 인간의 행위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는 문학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문학은 ‘언어’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그려낸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극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행동’을 유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는 또는 어렵게 만드는 ‘오해,’ 불가해성, 착오, 실수 등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 문화적·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잠시 접어두고 순전히 언어 차원에서 이러한 구조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작가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언어 세계를 개입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화 속에서 제시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신탁이나 예언을 통해 제시된다. 이러한 양상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에 있어서는, 예를 들자면, 「맥베스」(Macbeth)의 마녀들의 노래 같은 형식을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 특히 왕과 귀족들이 그들의 권력이나 번영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구하고자 찾아가는 성소 델포이(Delphi/Delphi) 신전은 일종의 순례지였다. 그곳에서 신의 뜻을 전달하는 주술사의 몽롱한 상태에서의 읊조림은 확실하지 않은 발성으로 인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내용에 대해 간혹 오해를 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이디푸스의 경우도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델포이 행의 목적이었는데, 그는 “그의 부친을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 내용을 듣고 경악하여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을 떠나려는 결단에 의해 인생의 방향을 즉각 바꾸어버린다. 하지만 그 말은 신탁이나 예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분명하진 않지만 절대적이며 불가피한 힘을 지니는 말로서 작동한다.

신탁이나 예언의 불가사의한 실행적 기능과는 달리 문제의 핵심 또는 진실에 대한 오이디푸스 왕의 접근 방법과 그 과정은 실증적이며 사실적

이다. 테베(Thebe)의 양치기와 코린트(Corinth) 양치기의 증언과 목격담이 바로 실증적 해결 방법으로서의 극적 장치이다. 라이오스(Laius) 왕과 왕비 이오카스테(Jocasta)가 신탁을 피하려고 아기를 내버리고자 한 비윤리적 처사에 대한 테베 양치기의 인간적 동정심, 그런 행동을 받아들여 그 아기를 코린트의 왕에게 안겨다준 코린트 양치기의 행동을 통해 작가는 인간의 자연스런 동정심을 그려낸다. 작가는 신탁에 의지해 얻은 정보로 불리한 운명을 비윤리적으로 정리해 재구성한 오이디푸스의 부모, 또는 비윤리적 운명을 윤리적으로 피해가려 했던 오이디푸스 자신, 이 모든 ‘행동’은 극적 대단원을 향한 기제로 고안된 두 양치기의 인간적인 행동에 의해 결국 그들의 ‘운명’은 신탁의 내용이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다면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종래의 해석들처럼 라이오스 왕가의 저주, 원초적인 죄, 또는 부조리한 것으로 규정하기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의 플롯상 구조를 볼 때 너무 단순한 해석이 될 소지가 크다.

극작품으로서의 전개방식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인간의 운명은 신탁 자체의 부조리성이나 절대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권력자의 경우엔 신탁의 내용에 의거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오이디푸스의 경우엔 결코 윤리적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테베 양치기의 경우엔 순수한 마음에서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긍정적 의도에서건 부정적 의도에서건 이 일련의 인간적 행위 자체가 이미 운명의 실현 단계들을 보여준다. 신화나 소포클레스 작품에서 제시되는 불가사의한 계시나 실현은 오히려 그의 작품 속에서 바로 그 불가사의함을 매체로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동을 통해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로고스적 생각⁴과 행동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Most, Glenn W. "From Logos to Mythos." *From Myth to Reason?* Ed. R. Buxton. Oxford: Oxford UP, 1999. 25-47.

「시학」에서 논의되는 비극적 주인공의 “실수” 또는 “약점”⁵을 오이디푸스 왕에 연결시키는 해석의 적합성 관련해서 비평가들은 자주 “오이디푸스의 잘못은 없다,” “의도적 행위가 아니다” 등을 언급하며 비극적 결합이 오이디푸스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장-뵘에르 베르낭(Jean-Pierre Vernant)에 의하면, 신탁은 “언제나 불가사의하지만 결코 거짓된 것은 아님으로”(always enigmatic but never lies) 오이디푸스의 질문 의도에 어긋나는 신탁의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은 오이디푸스의 문제를 그의 지나친 자기확신에서 비롯된 것(105)으로 간주하여 그의 ‘실수’나 ‘결점’을 인정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작품 속 오이디푸스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한 것은, 긍정적 의도에서건 부정적 의도에서건, 이기적 의도에서건 윤리적 의도에서건, 각각 그 의도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인간의 의식 또는 인식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며, 동시에 극적 파국의 지점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비극적 결합’으로 규정될 수 있는 핵심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이때의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 관계로서의 의식이 아닌, 인식의 한계로서의 의식이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시민 사회의 윤리적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비극적 정서의 바탕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 장르로서의 ‘비극’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인습적 가치는 역사적이며, 시대마다 다른 맥락 속에서 각각 인간의 한계에 대한 실존적 가치를 규정하면서 재맥락화되었다. 「오이디푸스 왕」에서 신탁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완결되어버린다. 신탁이나 예언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 벗어날 수 없는 ‘인간 조건’임을 이 작품은 보여준다. 바로 이 점이 「오이디푸스 왕」 비극의 본질이다.

5.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논의되는 “ἁμαρτία”(hamartia): 비극으로 연결되는 주인공의 “실수” 또는 “약점”을 의미하는 용어.

Ⅲ.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차용

프로이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오이디푸스 왕」은 ‘운명비극’으로 간주되어 그 작품의 비극적 효과는 신의 지고한 의지와 인간을 위협하는 악조건을 피하려는 인간의 무의미한 시도와의 충돌에서 찾아지며,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 관객이 배우게 되는 교훈은 신성한 힘에 복종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근대 작가들 역시 과거 소포클레스 작품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들 나름의 방식에 의해 동일한 대비 형식의 플롯을 창안해 「오이디푸스 왕」과 유사한 비극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운명비극’은 효과 면에서 관객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음을 프로이트는 지적한다. 이것은 그러한 형식이 “관객의 현재적 경험과 연결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Interpretation 364)고 그는 판단한다. 프로이트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과거 고대 희랍시대 관객들을 감동시킨 만큼 현대 관객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오이디푸스 왕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오이디푸스 왕에게 내린 동일한 신탁의 저주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에게도 내려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운명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프로이트는 어머니로 향한 최초의 성적 충돌과 아버지로 향한 최초의 격노한 충돌으로 “우리 모두”가 어릴 적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 오이디푸스 왕이었음을(364) 피력한다. 마르타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독실한 프로이트 주종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 저변에 섹슈얼리티가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피력한다. 고대 희랍인들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자제력의 유무, 안전함의 유무”(about control and lack of control, security and the absence of security)였음을 표명하면서(157) 누스바움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문화적으로 시대착오적인”(culturally anachronistic) 해석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서의 감동의 원천은 주어진 운명의 내용이 아닌, 그 운명이 실현되어 가는 방식에 있음을 간파하지 못하는 프로이트와 직결된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 차용과 관련된 대목들을 짚어가며 희랍극 「오이디푸스 왕」의 은유로서, 또는 비유 가능성으로서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대해 살펴보자. 프로이트가 부자간 갈등 관련 문제에 대해 탐색(self-analysis)하고 있을 당시, 1896년 그는 파리에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다. 이 공연이 그에게 끼친 영향은 크다.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 프로이트는 그의 탐색 대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명명하게 되며, 아들과 부모의 갈등관계를 지시하는 이 ‘신조어’는 그의 정신분석학 논의에 필수불가결한 일종의 라벨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류보편성 ‘발견’ 차원에서 당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차용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받지 않고⁶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정립을 위해 차용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현대 문학비평에 있어서 오히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기대어 희랍극 「오이디푸스 왕」을 조명하는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의 입지를 굳혀가기도 했다. 오이디푸스 신화 또는 문학 작품 해석에 관한 한 프로이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고대 희랍극의 진정한 의미 구조와는 거리가 먼 해석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만큼이나 그 비평적 실천에 있어서 거침없이 지속되어온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보아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리고 프로이트 자신도 명시하듯이 이 이론의 내용적 틀은 「오이디푸스 왕」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문제는 이 차용에 대해 이론화의 근거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정당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인

6.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차용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드물게 있어 왔으나, 이 논의는 지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것 역시 이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간의 심리를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프로이트 이후 「오이디푸스 왕」이야기는 그 고전적·철학적 의미로서의 입지를 상실했다. 이 상실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기초가 된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서는 소포클레스가 비극적 효과를 위해 구성한 극적 진행 방식에 의거한 이야기 전개 방식보다는 「오이디푸스 왕」 전체 이야기의 핵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사건진행의 전후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 인과관계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핵심인 가족 구성원들의 상관관계와 어떻게 병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렇게 해서 오이디푸스 모티브 ‘차용’과 관련된 긴밀한 상관성을 표명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형태적, 내용적 틀이 성립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본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가족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성의 기본적인 틀이며 조건이다. 신화 또는 비극에서 오이디푸스 성장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성의 틀과 조건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폴리부스(Polybus) 왕가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성장 후 전개되는 신탁의 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 가족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완결되어 버린다. 이미 성장 후, 그리고 이것은 의식·무의식 차원에서 볼 때, 오이디푸스의 태생과 무관한 상황 조건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 내에서의 오이디푸스의 의식·무의식’을 고려해볼 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성 상황의 적정 연령과 조건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테베가 아니라 친자식으로 자라난 바로 코린트의 ‘폴리부스 왕가 내(內)’에서이어야 한다. 훗날 그가 왕이 된 이웃나라 테베는 그러한 유아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발생 상황의 시점도, 적절한 조건도 아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하자면, 그의 유아기 가족관계라는 필수적인 틀은 정작 주인공의 의식·무의식과는 무관한 상황인 것이다. 오이디푸스의 삶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성 조건과 무관하다는 말이 된다. 자신의 생물학

적 태생에 대해 알지 못했던 오이디푸스에게 프로이트의 이론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그 생성의 틀은 폴리부스 왕가이어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목을 작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거나 부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알 수도 없는—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무관한 상황들이 운명이며 또는 필연으로 그에게 작용한다는 점이 시적(詩的), 문학적 맥락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 모두에게 비극적 감흥을 일깨운다. 오이디푸스의 태생과 관련해 생각해볼 때 신화 속 이야기의 라이오스 왕은 신탁에서 금(禁)한 자식을 갖게 되었고, 오이디푸스는 성장하여 알게 된 자신의 삶과 관련된 신탁의 비윤리적 내용이 실현되지 않기 위해 현재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여태까지의 삶과 무관한 시간과 공간을 향해 나아갔다. 생물학적 친부인 라이오스 왕은 신탁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오이디푸스는 가게 되어 있는 길을 피해서 간 것이 신탁을 실현한 결과를 가져왔다. 만약 오이디푸스의 의지에 의해 신탁을 피하려 하지 않고, 폴리부스 왕가로 다시 돌아갔다면 오히려 신탁과 무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이디푸스 왕」에서 인간 삶의 조건은 신의 영역인 한편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영역이다. 신에 의해 주어진, 정해진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신탁의 불가해한 내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간의 윤리적 판단마저도, 그리고 그 의지에 따른 인간의 선택적 행위 자체가 비극의 조건이자 시작이며 인간의 실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비극’이다. 그리고 이 비극은 어떤 상황에서든 신탁의 힘을 입증해보이고야 마는, 신의 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려 한 그리스 시대 인간 정신을 보여주려 한 것이 이 작품의 인문학적 기능이다. 이 모든 비극적 상황과 결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생성 조건과 무관하다. 이 무관함을 프로이트는 알지 못했을까? 아니면 알았어도 신탁의 내용 자체가 인간의 삶에서 금기시된 ‘타부’라는 사실에 그 측면을 부각하여 일반화하기에 적절한 이론적 모티브로 활용하기 위해 외면했을까?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프로

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진정한 힘”(the true force of Freud’s Oedipus complex)은 “죄에 대한 무의식”(the unconscious sense of guilt)이 아니라 ‘현실 원칙’(reality-principle)⁷이 우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지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ignorance)이라고 “추정”(surmise)한다(10).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진정한 힘”으로서의 “무지의 필요성”에 대한 블룸의 추정은 프로이트 이론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오히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진정한 극적 힘으로 귀속시켜야 할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블룸이 ‘추정’하는 “무지의 필요성”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희랍극, 특히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제시하는 인간적·사회적·철학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고대 희랍극 공연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향연이자 시민 교육의 장(場)이었다. 신탁을 통해 보여주는, 의식과 무의식과는 무관한 인간의 지식이나 인식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조심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방식을 ‘비극’이라는 형식을 통해 감상하게 하면서 동시에 반성하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였다. 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의 원죄처럼 애초부터 설정되어 있다. 그 이론은 이야기 전개 자체가 없으며, 또한 비극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사이의 비유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차이이다.

Ⅳ.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비유적 한계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방법이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근원을 향해 회귀

7. ‘reality-principle’: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있어서, 현실 원칙, 환경의 불가피한 요구에 적응하여 작용하는 심리 과정의 ‘현실 원칙’ 원리로서 ‘pleasure principle’과 대응관계이다.

또는 퇴행해가며 발견하는 고고학적 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도 분석 대상을 현재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점의 작품이면서, 동시에 어느 시기에나 인간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되어온 작품들 중에서 선택하는 경향이나 습성이 있다.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대면할 때 프로이트는 항상 거기서 얻게 되는 감동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⁸ 오래된 작품일수록 시간성이 극대화되면서 그 작품을 음미하는 관중들에겐 이미 인식된 의미 양상들이 투사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논의를 전개하기에 용이하고 더욱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차원에서 프로이트는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의 일반성 내지 보편성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나 신화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도입한다. 특히 「오이디푸스 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정신분석학적 작업”과 유사하다 (*Interpretation* 363)고 믿었다.

‘해석’이란 여러 수준, 또는 여러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비극 「오이디푸스 왕」으로부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정리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자기 분석”(self-analysis), 그의 신경증 환자들을 통해 발견되는 징후들 분석, 그리고 결정적 계기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 관람 후 갖게 된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해석적 확신에서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과학적으로 정립될 가능성을 찾게 된다. 이러한 비극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어떻게 교차되는지 프로이트의 생각을 살펴보자.

8. 예를 들면, 프로이트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라는 글에서도 시대를 불문한 보편적 감동의 원인을 찾아가기 위한 고고학적 해석을 시도한다. 다음을 참조, Sigmund Freud, “The Moses of Michelangelo,”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ume XIII (1913–1914): Totem and Taboo and Other Works*, 1st ed, Ed. and trans. James Strachey et al, London: The Hogarth Press, 1955, 211–36.

프로이트는 그의 “자기 분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묘한 생각이 떠오르는 정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일반적 가치”(general value)를 발견한 듯한데,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어린 시절의 “보편적 사건”(a universal event in early childhood)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장담한다. 만약 이 생각이 보편적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미 예정된 운명에 반대하는 이성(理性)의 모든 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지닌 마음을 사로잡는 힘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⁹이며, 또한 후대의 “운명 드라마”¹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Freud, *Interpretation* 364, 366). 한편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누구나 모두가 자기 내부에 그 존재를 감지하기 때문에 관객 모두 누구나 과거 어느 때 어린 오이디푸스로 존재했음”¹¹을 피력한다(*The Origins* 223-24).

빌헬름 플리스(Wilhelm Fliess)에게 보내는 이 글 속에 아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표현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 환상 속에 “어린 오이디푸스”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오이디푸스 왕」에서 실현된 억압된 이런 꿈이 각자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까 두려워하는, 모두가 한 때 “어린 오이디푸스”(a budding Oedipus)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프로이트의 분석이 1900년 출판된 그의 『꿈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Dreams*) 제 5장(“Typical Dreams” 362-66)에서 다시 논의된다.

『꿈의 해석』에서 제시된 오이디푸스의 운명은 1897년 플리스에게 보낸 위의 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9. “The gripping power of Oedipus Rex, in spite of all the inexorable fate that the story presupposes, becomes intelligible.”

10. 19세기의 특이 운명을 다룬 근대 희곡들: “modern tragedies of destiny.”

11. 1897년 10월 15일 Wilhelm Fliess에게 보낸 Freud의 편지 중: “The Greek myth seizes on a compulsion which everyone recognizes because he has felt traces of it in himself. Every member of the audience was once a budding Oedipus in phantasy.”

어린 시절의 “보편적 사건”은 ‘꿈’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며, 후대에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지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의 실체는 “고대 그리스 신화나 비극 작품 속에서 강조된 초자연적 요소로서의 신의 힘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의지 대결구도에서가 아닌, 그 대결 구도가 예시되는 소재의 특성에 있다”¹²고 한다(*Interpretation* 364). 이것은 바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질투하는, 인간의 태생적 운명으로서의 충동”¹³이며(364),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꿈’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이러한 “두 가지 꿈에 대한 상상력의 역작용/반작용”(the reaction of the imagination to these two typical dreams)이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366). 여기서 비극 「오이디푸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의 실제 관련해서 프로이트가 부정하는, 그리스 신화나 비극 작품 속에서 초자연적 요소로서의 신의 힘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의지 대결구도 관해 연극사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자.

고대 그리스 신화나 비극 작품 속에서 초자연적 요소로서의 신, 우주적 힘과 그것에 저항하는 인간의 의지 대결구도는 사회적·심리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18세기 이후 점차 초자연적인 신의 의지를 벗어나 인간과 인간의 갈등구도로 전환되는데 바로 이 시점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지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더 이상 신성한 법칙과의 갈등을 갖지 않고 인간들 사이의 욕망, 인간과 사회 체제와의 갈등으로 한정되면서 인간의 문제들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힘을 벗어나 더욱 쉽게 이해되고 해결 가능한 것이 되었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연극 장르에 비유하자면, 신과 인간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는 비극보다는 인간과 인

12. “Its effect does not lie in the contrast between destiny and human will, but is to be looked for in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material on which that contrast is exemplified.”

13. “It is the fate of all of us, perhaps, to direct our first sexual impulse toward our mother and our first hatred and our first murderous wish against our father.”

간의 대결구도를 보여주는, 소위 “드라마” 로서의 관계설정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치시키기에 더욱 적합한 시대적 조건인 것이다. 더구나 그의 이론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성적 충동과 갈등이 생성되는 기본 조건이다.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이론적 틀로서의 ‘가족 관계’는 보편화시키기에 적합했으며, 그런 성적 충동과 갈등을 위한 보편적 틀을 유럽 지성사에서 고전으로 간주되어온 희랍 비극에서 그는 찾은 것이다. 이렇게 그의 정신분석 이론의 명칭은 ‘고전’이 지니는 확고한 명성에 힘입어 자신의 이론을 더욱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극대화되었다.

희랍 신화나 희랍극이 인간성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사유의 초석으로서의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은 예술, 철학, 역사의 발전선상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유럽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해석적 열망이 바로 여기에 걸결되면서 고대 희랍 문화는 인문학적 사유의 시발점이자 귀착점이 되어 왔음은 이 글의 서두에서 지적한 바 있다. 프로이트 역시 그러한 열망을 실현할 어떤 대상, 또는 이론적 틀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라는 말을 어린 소년의 욕망의 특성 또는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남자 아이의 성적 욕망을 견제하고 억압하는 아버지에 대한 질투, 좌절, 복종, 그리고 살해 의지를 내포한다. 프로이트가 어린 소년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규정된 이런 무의식적 열망이 어떻게 오이디푸스 왕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적용 가능성에 대한 프로이트의 확신은 「오이디푸스 왕」 작품 중 이오카스테의 대사에서이다. 그 장면에 대해 잠시 논해보자. 코린트로부터 온 메신저가 폴리보스 왕의 사망 소식을 가져오자 그를 친부로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는 슬픔과 동시에 안도한다. 그것은 자신이 부친을 살해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또 다른 하나의 예언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때 이오카스테는 오이디푸스를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불가사의한 신탁의 비현실적 측면을 강

조하며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삶을 영위하자는 말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오카스테는 인간에게 운명은 절대적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인간은 그냥그냥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상책이에요. 어머니와의 결혼이라는 것도 무서워할 것이 못 돼요. 과거 많은 사람들이 꿈에서 어머니와 동침했다는 사람도 많아요”¹⁴라고 한다. 프로이트로 하여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탄생시킨 바로 그 대목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정신분석학을 위한 프로이트의 이론적 소망을 실현시켜줄 보편적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여기서 세상의 모든 어린 소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게끔 프로이트에 의해 운명지어진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희랍비극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구심을 유발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희랍비극, 특히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의 특성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잘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 문학비평이나 연구에 있어서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문학 작품에 응용하면서 더구나 희랍 비극의 특성 자체를 프로이트 이론에 의거해 해석하는 왜곡된 방식을 생성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을 「오이디푸스 왕」의 플롯 특성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오이디푸스”라는 명칭이 가져온 인문학적 해석의 파장은 커져만 갔다. 한편, 문학 작품 속 특정 갈등관계를 프로이트식의 오이디푸스적 갈등 구조에 의거해 풀어나가는 해석 방식은 작가의 창작을 프로이트식 이론적 틀에 맞추는, 창작과 비평의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을 빚는 경우를 목도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의 한 예를 들면,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14. “What should a man fear? It’s all chance, / Chance rules our lives. Not a man on earth / Can see a day ahead, groping through the dark, / Better to live at random, best we can, / And as for this marriage with your mother— / Have no fear. Many a man before you, / In his dreams, has shared his mother’s bed” (Sophocles, *Oedipus the King*: lines 1069–75).

소설 『대사들』(*The Ambassadors*) 중 스트레더(*Strether*)라는 인물의 문화적 갈등을 오이디푸스적 갈등으로 풀어나가려는 시도¹⁵가 있다. 여기서 데이비드 스미스(*David L. Smith*)는, 스트레더의 갈등의 특성이 소위 프로이트식의 오이디푸스적 갈등 구조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대사들』은 독자들에게 “전통적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아닌 변형된 (*amended*) 형태를 제공한다”라고 하여, 그것은 원래 진행되어야 할 방식의 행보(*trajectory*)에서 ‘교란’되었음을 언급한다. 프로이트식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전통적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아닌” 일종의 “변형된 형태”로 간주하는, 주객이 전도된 바로 그러한 비평적 접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평방식을 보완해주는 논의들도 있다(*Smith 1-26*). 예를 들면, 헨리 제임스가 프로이트에 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적으로 추론해보려는 시도들¹⁶이다. 어떤 필자에 의하면, 20세기 초까지 영어권 심리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아주 드문 한 예외의 경우를 헨리 제임스 관련 글을 통해 제시한다. 그 내용은, “프레데릭 마이어스(*Frederic W. H. Meyers*)의 ‘식역하의식’(識闕下意識, *subliminal consciousness*) 관련 내용이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의 1896년¹⁷ 글(“*What Psychical Research Has Accomplished*”)에서 언급되며, 따라서 윌리엄 제임스의 동생인 헨리 제임스도 간접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상정하면서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프로이트적 해석 틀에 적용하는 경우(*Abdul Jabbar 1-19*)이다.

15. Cf. *Smith, 1-26*.

16. 이런 접근 방식에서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대사들』 출판 시기와 『꿈의 해석』 출판 시기를 비교해보면서, 또는 두 사람 간의 영향관계를 찾아보는 시도를 하면서 소설 창작에 있어서 그런 이론 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논의에서는 그 영향관계 유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17. 윌리엄 제임스의 “*What Psychical Research Has Accomplished*”는 1896년이 아닌 1892년 *Forum* 제 13권(727-42)에 수록되었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차용 주체로서의 프로이트의 입장과 관련해 차용의 ‘임의성’ 또는 ‘상관성’ 문제를 따져볼 때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그리스 비극의 진정한 의미 체계를 지니지 못하며, 비극 작품의 문학적 문화적 기능과 사회적 목적 등, 그 어느 것이라도 공통된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음을 규명해보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프로이트가 차용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은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과학적 이론을 위한 비유나 은유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비극 작품의 플롯은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치밀하게 구성된다. 이 인과관계의 극적 치밀성이 비극의 강도(強度)를 결정한다. 프로이트는 비극의 생명인 바로 이 플롯의 생성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등장인물의 관계가 가족관계이며,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정신분석학의 기초로 설정하여, 복잡 미묘한 비극의 플롯 구성을 인간 심리의 ‘콤플렉스’로 대체해버렸다. 희랍 비극의 전형 또는 전범(典範)으로서의 「오이디푸스 왕」 자체가 지니는 보편적 독자성이, 자의적이며 임의적인 차용에 의해 정립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서도 역시 인류의 보편적 특성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판단이다. 더구나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철학 방식과는 다른 경험적 과학으로 확신했으며, 따라서 그것은 입증 가능한 진실이라고 믿었다. 고대 그리스 작품의 특징과 프로이트의 과학적 이론과의 관계가 상호 맥락성 없이 언어차용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지만, “오이디푸스”라는 명칭이 부여하는, 신화와 고전으로서의 긴 생명력과 탈경계적 영향력을 지닌 작품이 생성해내어 온 보편적 인식으로 인한 파급성은 프로이트로 하여금 수월하게 그 보편성 입지를 확보하게 한 셈이다. 각각의 맥락성의 상응관계에 대한 해석적 해명을 위한 비판적 요청은 실제적 흐름에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담 때문에 사실상 부재한 셈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은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이론이 어떤 진정한 전반적인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사

실이다. 이아고 글래드스톤(Iago Gladston)은 1954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 글에서 그의 이론적 체계와 용어의 공식화에 대해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詩)적 속성을 지닌다(804)¹⁸”고 하여 프로이트 이론의 과학적 적합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한다. 프로이트의 이론 체계가 과학이 아닌 시적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본 것은 글래드스톤이 프로이트 이론을 ‘상상’의 영역으로 간주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꿈’에 대한 해석은 고대에서부터 연구되어온 것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주제를 논하려면 플라톤과 소포클레스의 시대로 거슬러가 탐색해야 함을 그는 주장한다. 이 입장은 잭 스펙터(Jack J. Spector)가 『프로이트의 미학』(*The Aesthetics of Freud*) “서문” 중 프로이트 연구에서 드러나는 분분한 관점들(neo- and anti-Freudians, vii-xiv)과 일맥상통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스펙터는 프로이트 관련 연구 활동의 특성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프로이트의 특성을 규정해보려는 과정에서, 19세기 말 독일 소설의 자전적 특성을 예로 들며 당시 뛰어난 작가들의 자기 정신에 다가가는 심리성을 논한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문화적 성장·발전의 근원을 추적하듯이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고 연구한 것은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작품”으로서의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 자신의 “성장소설”(Bildungsroman)로 간주될 수 있다는 스펙터의 지적(x-xi)은 그만큼 시대적·문화적·문화적 맥락의 특성이 인간 활동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9세기 말 독일 소설의 자전적 특성이 프로이트의 개인적 성장의 중요한 문화적 맥락이라고 한다면, 프로이트가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문학 작품 중 고대 그리스·로마 문학, 그 중 특히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오이디푸스 왕」은 그의 ‘과학적’ 탐색 대상이자 원천이며 맥락 자체이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의 「오이디푸스 왕」 차용 방식은 어떤 수준에서 살펴보아도 ‘전적

18. 글래드스톤의 주장은 이 글 서두에서 소개된 옹프레의 입장과 일맥상통함을 간파할 수 있다.

으로' 맥락성이 부재하는 경우이다.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의 관계는 어떤 가능성이나 개연성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잘못된 결합이 아닐 수 없다. 이 이론은 희랍비극으로부터 차용했지만 그 차용 방식은 전적으로 ‘임의적’이다.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 사이에 ‘비유 관계’ 또는 ‘은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 예술 경향의 이론적 기반을 위해 차용한 지식이 그 기초이론을 제공한 사람에 의해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차용되는 입장으로서의 프로이트와 “초현실주의”와의 관계가 바로 그 예이다. 프로이트와 거의 동시대에 등장하여 다다이즘(Dadais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던 예술가들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그들의 “초현실주의” 예술을 펼쳐나간다.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초현실주의자들이 주창할 때, 프로이트는 그들의 예술이 자신의 ‘무의식’ 이론의 전제에 어긋난다고 하여 상호 관련성을 부정한다. 그러나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러한 부정에 개의치 않고 그들의 예술 경향을 만들어간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이트와 초현실주의자들은 출발점에서부터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정신분석이론의 과학적 입증을 위한 ‘보편성’ 정립을 위해 ‘고전’의 이미 확보된 보편성으로서의 인식을 차용하고자 했다면, 초현실주의자들은 고전의 보편적 평가나 보편적 인식을 전면적으로 부정(Bergstein 203)한 것이다.

동시대 초현실주의자들의 ‘무의식’ 이론 차용에 대해 프로이트가 자신의 이론의 “전제에 어긋난다”라고 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비극을 프로이트 자신의 과학적 이론을 위해 자의적으로 차용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여기에 ‘맥락성’과 관련된 프로이트의 두 다른 입장에 의해 드러나는 두 가지 면모를 간파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상호맥락성이 부재하는 비유 차원의 이론 정립을 수행한 프로이트, 두 번째 경우는 특정 예술 경향이 프로이트와의 상호 맥락성 공유 또는 이론적 상관성을

반영하고 표방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맥락성이나 상관관계를 부정하는 과학자로서의 프로이트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인 문학 작품과의 관계설정에서 합당하게 요구되는 역사적·신화적·문학적 상상력의 전제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특정 이론이 규정하는 과학적 상상력의 전제를 함께 두고 볼 때, 전제로서의 비중을 어디에 어떻게 합당하게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문학 작품과의 관계설정에서 합당하게 요구되는 역사적·신화적·문학적 상상력의 전제를 전적으로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V. 또 하나의 “욕망하는 기계”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이론화하는데 있어서 소포클레스 작품의 보편적 가치와 평판에 편승하여 자신의 평판을 확고히 하는데 오이디푸스를 사용하였다. 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있어서 “콤플렉스”(complex)는 그의 이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콤플렉스는 단순하지(simple) 않은 사물의 존재방식인데, 프로이트는 콤플렉스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콤플렉스를 마치 사물의 명칭처럼 사용하고 만다. 그 결과 후대의 사람들은 콤플렉스를 심지어는 열등의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미숙하여 잘 정련되지 않은 하나의 일반화가 고대 희랍의 유명 작품의 한 놀라운 비극적 등장인물에 편승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의 프로이트 비판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프로이트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반대 이론은 아마도 들뢰즈와 가타리의 『자본주의와 정신분열: 안티-오이디푸스』(*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 L'Anti-Œdipe*)¹⁹일 것이다. 그들은 “안티-오이디푸스”

19. 『자본주의와 정신분열』 제 1권이 『안티-오이디푸스』이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

를 통해 콤플렉스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본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프로이트의 가설처럼 억압된 욕망이 연극처럼 표출되는 무대와 같은 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욕망하는 기계”(les machines désirantes)²⁰이다. 오이디푸스라는 속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donné)고 사람들은 쉽게 믿어버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그것은 단지 “욕망하는 기계의 놀라운 표상”(une fantastique représentation des machines désirantes)이라고 들뢰즈는 생각한다(8).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는 우리 인간의 유일하고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우리 인간, 즉 “욕망하는 기계”가 생산한 하나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이디푸스를 우리의 속성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가설 또한 “욕망하는 기계”의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들뢰즈는, “세상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며, 자본주의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들은 억압된 병적인 것이라기보다 욕망의 생산물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함을 표명한다. 들뢰즈는 그가 상정한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프로이트가 자의적으로 차용한 오이디푸스적 욕망이 특수한 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위대하고 저명한 고전을 부적절하게 차용하지만 이 행위도 특정 인간 의지의 발현체이고 생산물인 셈이다.

VI. 결론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으로부터 차용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그리스 비극이나 신화의 진정한 의미와 정당한 상응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이 논문이 출발하였다. 이

스 콤플렉스” 이론에 대한 그의 비판을 읽을 수 있다.

20. 제 1장 “Les machines désirantes”(7-59) 참조.

러한 의미구조의 불일치는 「오이디푸스 왕」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맥락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간과하였다.

맥락의 상이로부터 오는 의미구조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필자는 세 가지를 가정하였다. 첫째는 지적(知的) 능력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오해, 두 번째는 권력 의지에 의한 지적 기만,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욕망에 의한 전유이다. 프로이트의 업적으로 판단할 때 논문의 시작에서 쉽게 첫 번째 가정을 배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증거와 견해를 발견하였다.

서구 문학사 또는 연극사에서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차지하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관련된 보편적 가치는 프로이트에 의해 차용되면서 그 ‘보편성’의 핵심이 되는 작품의 비극적 감정의 카타르시스적 순화 기능²¹은 완전히 배제되어,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친 살해와 근친상간이라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해석의 특수한 이론적 근거로서만 차용되었다. 프로이트는 자신이 발견한 ‘콤플렉스 발생 상황’으로서의 가족 관계와 「오이디푸스 왕」에서 나타나는 가족 관계를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의 부친 살해 상황은 「오이디푸스 왕」에서의 부자관계로서의 의식 또는 무의식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길을 지나다 우연히 맞닥뜨리게 되는 오이디푸스와 라이오스 왕 일행 사이의 결투,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물리친 후 테베로 입성하여 왕으로 추대받으며 테베 왕비 이오카스테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전제하는 가족 관계라는 틀 속에서 상호간의 관계의

21. *Poetics* 중 비극적 감정의 카타르시스적 순화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인간 ‘감정’에 대한 플라톤의 부정적 견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의 시적(詩的) 감흥의 심리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변호를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만들어진 비극이 인간의 삶에, 그리고 국가 전체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비극적 감정의 카타르시스적 순화 기능을 토로한다.

특성에 의해 생겨나는 일들이 결코 아닌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모든 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거치게끔 운명지어졌다. 그에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모든 어린 아이의 운명이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가족’이라는 상황적 조건/틀 내에서의 의식·무의식 차원이 작동해야만 성립하는 이론이다. 한편 작품 속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에서 무관한 사람들이 신탁의 내용적 구조 속에서 이미 사건을 완결시켜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성적(性的) 억압과 관련된 인과관계, 소위 프로이트의 “콤플렉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사건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입증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과거 오이디푸스를 내다버린 사람과 아기 오이디푸스를 이웃나라 왕에게 바친 사람의 증언이며, 이것은 작품의 결말을 위해 대단원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실증적 차원에서 전개될 뿐이다.

세 번째 가정과 관련하여 필자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견해를 가져왔다. 이 견해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무능하지도 기만적이지도 않다. 다만 욕망하는 기계로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모든 가능한 전략들을 동원하려고 할 수 있다. 그 중 최고의 전략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최고의 인기, 즉 오이디푸스의 명성에 편승하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전유(appropriation) 사례이다.

이 논문을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가정 중 어떤 해석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 근거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차용이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 왕」과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양자에 있어서 의미 구조의 불일치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Works Cited

- Aristotle. "Poetics." *Aristotle: Poetics. Longinus: On the Sublime. Demetrius: On Style*. Trans. Stephen Halliwell. Cambridge, Mass.: Harvard UP, 1995. Print.
- Bergstein, Mary. *Mirrors of Memory: Freud, Photography, and the History of Art*. Ithaca, NY: Cornell UP, 2010. Print.
- Bloom, Harold, ed. *Sophocles' Oedipus Rex*. New York: Infobase Publishing, 2007. Print.
- Buxton, Richard, ed. *From Myth to Reason?: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Greek Thought*. Oxford: Oxford UP, 1999. Print.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1: L'Anti-Édipe*. 1972.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73. Print.
- Freud, Sigmund. *The Origins of Psycho-Analysis: Letters to Wilhelm Fliess, Drafts and Notes: 1887–1902*. Ed. Marie Bonaparte, Anna Freud, and Ernst Kris. Trans. Eric Mosbacher and James Strachey. New York: Basic Books Inc., 1954. Print.
- _____.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Ed. and trans. James Strachey. London: Penguin Books, 1977. Print.
- Gladston, Iago. "Sophocles Contra Freud: A Reassessment of the Oedipus Complex." *The Bulletin* 30.10 (1954): 803–17. Print.
- Jabbar, Wisam Kh. Abdul. "The Freudian Model of the Psyche in Two of Henry James's Short Stories." *Consciousness, Literature and the Arts* 13.3 (2012): 1–19. Web.
- James, William. "What Psychical Research Has Accomplished." *Forum* 13 (1892): 727–42. Print.
- Matthiessen, F. O., and Kenneth B. Murdock, eds. *The Notebooks of Henry James*. New York: Oxford UP, 1961. Print.
- Morgenstern, N. "The Oedipus Complex Made Simple." *University of Toronto Quarterly* 72.4 (2003): 777–88. Web.
- Most, Glenn W. "From Logos to Mythos." *From Myth to Reason?* Ed. R. Buxton. Oxford: Oxford UP, 1999. 25–47. Print.
- Nussbaum, Martha C. "The Oedipus Rex and the Ancient Unconscious." *Sophocles' Oedipus Rex*.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155–82. Print.
- Onfray, Michel. *Crépuscule d'une idole. L'affabulation freudienne*. Paris:

- Grasset, 2010. Print.
- Smith, David L. "The Jamesian Oedipus and the Freudian Moses: Image, Word, the Later Style, and *The Ambassadors*." *Studies in the Novel* 44.1 (2012): 1–26. Print.
- Sophocles. "Oedipus the King." *The Three Theban Plays*. Trans. Robert Fagles. New York: Penguin, 1984. 171–249. Print.
- Spector, Jack J. *The Aesthetics of Freud: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Art*. New York and Washington: Praeger Publishers, 1973. Print.
- Vernant, Jean-Pierre, and Pierre Vidal-Naquet. *Myth and Tragedy in Ancient Greece*. Trans. Janet Lloyd. New York: Zone Books, 1990. Print.

Abstract

A Modern False Allegory: Sophocles's *Oedipus the King* and Freud's "Oedipus Complex"

Choon-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raeco-Roman thinkers and dramatis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urope, providing an important source of raw material for modern arts, science, and literature. Their influence in modern appropriation continued developing and postulating comparative relationships between the original, pre-existing objects and the newly adopted forms either in the same area or in an interdisciplinary one. In this article, I try to show a case which created distorted perceptions of comparative relationship in terms of appropriation: the Freudian theoretical formulation of the "Oedipus complex" based on Sophocles's *Oedipus the King* within the framework of family relationships. Firstly, I examine how Freud formulated the metaphoric nature of oedipal concepts from a Greek tragedy to assume that his scientific field will have its 'universal' interpretive framework with respect to the "Oedipus complex" occurrence conditions of in-family relationships. Secondly, I'll examine how Freud's premise of the theory is misplaced in light of the Greek tragedy to demonstrate the analogy between the plot of *Oedipus the King* and his theoretical framework of psychoanalysis as inappropriate to be defined as scientifically "universal." Finally, I'd argue that how this intercultural, interdisciplinary appropriation can be read as false analogy in which Freudian claims, defined as scientifically "universal," are presented in an inappropriate context. Thus, a conclusion may be obtained for further possible argument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heory by looking at another facet of the problem: we discuss how the act of a Freudian formulation of the "Oedipus complex" may be observed in terms of human desire ("machines désirantes").

Keywords: *Oedipus the King*, “Oedipus Complex,” Sophocles, Sigmund Freud, appropriation, desiring machines/“machines désirantes”

Choon-Hee KIM is a theatre critic, a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Humanitie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visiting Professor of th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Korean Studies at Sungkyungkwan University. She obtained her Ph.D. in Comparative Literature (on Henry James and Emile Zola) at Paris-Sorbonne University in 1994 and presently serves as the president of Henry James Society of Korea. She has enduring interest in Comparative Literary/Cultural theory and its methodology. Her forthcoming publications include: *A Comparative Study of Cultural Transformation and Identity Formation* and *Critical Experiences of the 'Unexpectedness' in the Humanities*.

eureka@snu.ac.kr

Received: 30 April 2016 Reviewed: 18 May 2016 Accepted: 24 May 2016
